8. 간사한 자를 분별하는 것이 현인을 등용하는 요령임을 논함

손님 주상께서 혼자 다스릴 수 없고 반드시 보좌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다스리는 도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보좌하는 책임을 장차 어떤 사람에게 맡겨야 합니까?

주인 주상께서 이미 큰 뜻을 세우고 실제적인 효과를 구하려고 힘쓰신다면, 조정의 원로대신과 관청에서 밤낮으로 애쓰는 현명한 사람 가운데 어찌 나와서 호응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만일 뜻을 세우고 실질에 힘쓰며 자기 몸을 닦고 나라를 바로잡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가 적임자입니다.

손님 조정의 신하들 가운데 비록 자기 몸을 닦아 나라를 바로잡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주상께서 어떻게 그가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인 것을 아시겠습니까?

주인 구름은 용을 따르고 바람은 호랑이를 따르니, 참으로 임금다운 임금이 있다면 반드시 그런 신하가 있습니다. 옛날의 성스럽

고 현명한 임금이 큰 뜻을 완수하려면 반드시 여러 신하를 두루 살펴보고 현명한지 아니한지 깊이 관찰하였습니다. 그가 현명하다고 판단되면 오래된 친구처럼 가까이 하여 서로 마음을 털어놓았으며, 과연 그가 정말로 현명하다고 믿은 뒤에 큰 임무를 주어 공을 이룰 책임을 맡겼습니다.

우리나라의 역대 임금들과 여러 신하들이 마치 집안사람이나 부자(父子) 관계와 같이 친애하였기 때문에, 여러 신하들이 은혜에 감동하고 덕을 품고 죽을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상께서 다만 경연에서만 현명한 선비를 접대하시며, 예법이 엄하고 말씀이 간단하시므로 신하들은 행렬을 따라 나아갔다가 줄지어 물러나기만 합니다. 그러니 여러 신하들의 뜻이 위로 다 전달되기 어려워, 임금께서 총명하시더라도 어떻게 신하들을 다 살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전례만 따르고 다만 겉치레를 일삼는다면, 여러 신하들의 현명함과 그렇지 않음을 주상께서는 끝내 살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인재를 얻어서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계책은 일상화가 되어버린 규칙을 바꾸고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여, 경연 이외에도 유학을 공부한 신하들을 만나 조용히 도를 의논하여 정무에 반영하는 것처럼 좋은 일은 없습니다. 주상께서 침묵만 지키지 마시고 마치 메아리처럼 말을 주고받으면, 위아래의 뜻이 서로 믿고 시원하게 통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면 거짓과 올바름이 주상이 살피는 것에서 피하기 어렵고, 등용하고 내치는 것이 주상의 권한에서 말없이 결정되어 성스러운 덕을 성

취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자가 말하기를, "하루 사이에 임금이 현명한 사대부를 만나는 시간이 많고 환관이나 궁녀들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 적으면, 바른 기질을 함양하고 덕성을 배양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이 말이 참으로 만고의 치료약입니다.

손님 올바른 사람은 거짓된 사람을 가리켜 거짓되다고 하고, 거짓된 사람은 올바른 사람을 가리켜 거짓되다 할 것이니, 어떤 방법으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군자가 소인을 공격할 때에는 말이 순조롭고 이치가 곧지만, 소인이 군자를 공격할 때에는 말이 어렵고 이치가 곧지 않습니다. 소인의 악은 환하게 볼 수 있으니, 재물에 더럽혀지거나 윤리에 어긋나거나 사적인 일로 공적인 일을 망치거나 현명한 사람을 방해하고 나라를 병들게 합니다. 소인의 많은 허물과 사특함을 일일이 셀 수 는 없지만, 그 요점은 모두 눈에 띄어 지적할 수 있으므로 보기 어렵거나 말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군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말하면 정직하여 굽힘이 없으며, 그 행실을 말하면 결백하여 흠이 없으며, 그 절개를 말하면 지조가 굳어 굽히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만약 덕을 이룬 선비가 아니면 혹 작은 결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또한 기질의 치우침에서 나온 것일 뿐으로, 함부로 악을 행하면서 거리낌이 없는 소인과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소인이 군자를 공격할 때에 반드시 구실을 따로 내세워 임금의 귀를 현혹시킵니다. 군자가 성리(性理)의 학문*에 마음

을 두어 선현들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면 거짓 학문이라고 지목합니다. 몸을 닦고 의를 행하여 인륜을 밝히려고 하면 위선이라고 지목합니다. 임금을 이끌어 도리에 맞게 하여 삼왕오제(三王五帝)•의 다스림을 따르게 하려고 하면 고담준론으로 세상을 그르친다고 지목합니다. 분개해서 일을 논하여 세속의 폐단을 바로 잡으려고 하면 경박하게 일 만들기 좋아한다고 지목합니다. 같은 뜻은 지닌 자들을 이끌어 나아오게 해서 나라의 일을 함께 다스리려고 하면 붕당(朋黨)•을 맺는다고 지목합니다.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며 흐린 것을 배격하고 맑은 것을 선양하면 자기와 다른 것을 배척한다고 지목합니다. 바른 길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아 공적인 도리를 붙잡으려고 하면 나라의 정권을 혼자 잡고 휘두른다고 지목합니다. 임금의 면전에서 직언하거나 조정에서 논쟁을 벌여 임금의 덕을 도우려고 하면 임금을 공경하지 않는다고 지목합니다. 임금이 반드시 예를 갖추어야 벼슬길에 나아오며 많은 봉록을 하찮게 여기면, 임금을 협박하여 비싼 값을 받으려 한다고 지목합니다. 도가 시행되지 않아서 물러나면 원망하여 공손하지 않다고 지목합니다. 이렇게 말을 꾸미고 거짓된 말을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 요점은 모

- 성리(性理)의 학문 : 인간의 본성과 하늘의 이치를 중심 주제로 다루는 성리학을 말함.
- 삼왕오제(三王五帝) : 삼왕은 하(夏)의 우왕(禹王)과 상(商)의 탕왕(湯王)과 주(周)의 문왕(文王)을 말하고, 오제는 상고 시대 전설상의 다섯 제왕으로 황제(黃帝) · 전욱(顓頊) · 제곡(帝嚳) · 요(堯) · 순(舜)을 말함. 앞에 나옴.

두 치우치고 방탕하고 간사하고 둘러대는 말들이니, 현명한 사람이 한 번 비추어보면 마치 그 폐와 간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손님 소인의 실태를 과연 그렇게 쉽게 볼 수 있습니까?

주인 다만 임금이 욕심을 가졌는가 걱정될 뿐입니다. 만일 임금이 욕심이 없다면 소인이 무엇을 틈타 은밀하게 임금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지금은 주상께서 막 정사를 시작하는 날 모든 정사를 새롭게 하시게 되니, 군자와 소인이 각각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만약 주상께서 물욕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오직 다스리는 도리만을 강구하신다면 군자의 바라는 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약 사사로운 욕심이 조금이라도 임금의 마음속에 싹튼다면 소인이 여러 갈래로 틈을 노릴 것입니다.

주상께서 만약 낳아준 부모를 높이겠다는 사사로움이 싹튼다면, 소인들은 반드시 틈을 노려 '가정(嘉靖)황제를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는 설로 주상의 귀를 현혹할 것입니다.• 만약 주상께서 도학을 듣기 싫어하는 사사로움이 싹튼다면, 소인은 반드시 틈을 노려 '가짜 선비들의 빈말은 실질이 없다.'는 설로 주상의 귀를 현혹할 것입니다. 만약 주상께서 직언을 좋아하지 않는 사사로움이 싹튼다

• 붕당(朋黨) : 학맥이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형성된 집단을 일컫는 말. 당파(黨派).
• 가정황제…입니다 : 선조는 후사가 없던 명종의 뒤를 이었다. 그래서 낳아준 부모가 따로 있었는데, 덕흥대원군 내외이다. 명나라의 가정황제 또한 후사가 없던 무종의 뒤를 이었는데, 즉위 초에 낳아준 부모에 대한 대우 문제로 신하들과 대립하였다.

면, 소인은 반드시 틈을 노려 '대간(臺諫)*의 말을 다 믿을 수 없다.'는 설로 주상의 귀를 현혹할 것입니다. 주상께 만약 그럭저럭 편하게 지내고 싶은 사사로움이 싹튼다면, 소인은 반드시 틈을 노려 '국가는 이미 잘 다스려지고 있으니 걱정할 것이 없다.'는 설로 주상의 귀를 현혹할 것입니다. 만약 주상께 외척을 의지하고 중시하는 사사로움이 싹튼다면, 소인은 반드시 틈을 노려 '친척인 신하가 가장 믿을 만하다.'는 설로 주상의 귀를 현혹할 것입니다. 만약 주상께 내시를 총애하고 가까이하려는 사사로움이 싹튼다면, 소인들은 반드시 틈을 노려 '집에서 부리는 종들은 비록 귀해져도 쉽게 제어할 수 있다.'는 설로 주상의 귀를 현혹할 것입니다. 만약 주상께 망령되이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 복을 구하려는 사사로움이 싹튼다면, 소인은 반드시 틈을 노려 '도교와 불교의 화복설이 거짓이 아니다.'는 설로 주상의 귀를 현혹할 것입니다. 만약 주상께 음탕한 음악이나 여색을 좋아하는 사사로움이 싹튼다면, 소인은 반드시 틈을 노려 '베개를 높이 베고 뜻대로 즐거움을 누리시라.'는 설로 주상의 귀를 현혹할 것입니다.

소인이 틈을 노리는 옆길이나 굽은 길을 다 셀 수 없지만, 그 요점은 모두 임금의 귀를 가리고 스스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주상께서 대상을 연구하고 앎을 이루어 천리를 연

* 대간(臺諫) : 조선시대 간언(諫言)을 맡아보던 관리를 이르는 말. 곧 사헌부(司憲府) · 사간원(司諫院)의 벼슬을 통틀어 이르던 말.

구하신다면, 저 소인들의 실태는 작은 것까지 밝히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여 그 마음을 공정하게 가지신다면, 군자들의 계책은 말마다 부합되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사함을 분별하는 데는 이치를 연구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고, 현명한 사람을 아는 데는 마음을 공정하게 먹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치를 연구하고 마음을 공정하게 먹는 것은 욕심을 적게 하는 것으로 근본을 삼습니다.

해설

이 편에서는 율곡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개진하고 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왕도정치의 조건으로 임금다운 임금과 신하다운 신하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는데, 이 편에서는 현명한 신하와 간사한 신하를 구별하는 방법을 논하고 있다. 그래서 현명한 신하와 간사한 신하의 특징을 잘 요약해 놓고 있다.

이렇게 현명한 신하와 간사한 신하를 분별하려면, 임금 자신부터 현명하고 사사로운 욕심이 없는 지도자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만약 임금에게 사적인 욕심이 있거나 우둔하여 사리판단을 제대로 못한다면, 율곡이 말한 모든 게 공염불이 되고 만다. 이것은 현대 정치나 기업에 있어서도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나 기업가가 사적인 욕심 때문에 사리판단이 흐리다면 국정이나 기업은 파탄으로 흐르는 것과 같다. 비록 참모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지만, 본인이 어떤 욕심을 가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민심을 제대로 못 읽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참모들에게만 의지한다면 참모들 또한 그 점을 간파하고 아첨하며 민심이 원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과 영달을 먼저 꾀할 것이다. 그런 폐단은 수도 없이 봐 왔고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이점에서 율곡의 혜안이 돋보인다.

아마도 이런 염려 때문에 조선에서는 장차 임금이 될 왕자는

세자 때부터 교육을 강화하였고, 임금이 되어서도 경연이나 간언(諫言)·상소(上疏) 등을 통해서 바른 임금의 도리를 강명(講明)함과 동시에 직언도 아끼지 않았다. 만약 이래도 임금이 제대로 판단을 못하게 된다면, 무엇이 문제가 될까? 그것은 한 인간으로서 임금 자신의 한계일까? 아니면 인간사회의 정치적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정치철학적 인식의 한계일까? 조선의 역사를 통틀어 이른바 성군이라는 임금도 흔치 않지만, 설령 그런 임금이 몇 명 있었다손 치더라도 당대의 정치가 요순의 그것과 같지 않은 것은 또한 어떤 이유 때문일까?

사실 유교정치는 성인(聖人)의 독재를 인정하는 체제이다. 왕조시대니까 이럴 수밖에 없지만, 바로 여기서 현명한 신하와 간사한 신하, 달리 말하면 군자와 소인을 구별하고 소인을 내치고 군자를 등용하여 그들이 성인의 청치를 보좌하게 한다. 이런 성인인 임금과 군자인 신하는 사적인 이익보다 공적인 이익인 백성의 삶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다.

문제는 이렇게 이성적으로 사적인 이익을 배제하고 나라나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한 정치가들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는 점이다. 이것은 그런 뜻을 지닌 현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율곡의 논리대로 보자면 그런 사람이 정치현장에 진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 또한 임금이 현자를 알아보는 능력에 달린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현대정치에서 군자와 소인으로 구분되는 윤리적 당위성만으로 나라를 이끌어 간다는 것은 뚜렷한 한계를 지닌다. 왜

냐하면 세력 간의 첨예한 이익이나 권리를 조정하고 타협하는 장이 정치현장이기 때문이다. 윤리적인 잣대로 서로를 배제한다면, 서로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 세력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정치현장은 상대의 윤리적인 약점의 꼬투리를 잡아 끝없는 투쟁의 장이 될 수밖에 없다. 과거의 공산주의 사회를 보라. 하나의 이념이나 가치로 하나의 정치세력만 인정하였을 때 생기는 폐단을 보라. 사회발전은 고사하고, 같은 당 내부에서도 권력투쟁과 암투가 더 많은 문제가 되었던 사실을. 차라리 각 집단의 이익과 권리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을 인정하고, 타협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훨씬 장기적인 안목에서 상생하는 길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 현대정치사에서 볼 때 상대를 이념적으로 몰아붙여 특정한 세력이나 기득권의 이득만 챙기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타협은 없고 독단적 결정과 공격,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권의 쟁취와 유지가 그것이다.

사실 윤리적인 잣대로만 보자면 과거 친일파나 그 후손, 군사쿠데타 세력, 정경유착의 재벌출신 등은 정치현장에 발붙이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정치세력 면에서 본다면 이들이야말로 기득권 세력이며 현실적 힘을 지닌 이 땅의 지배자들이다. 그들도 자기들이 가진 것을 지키고 더 많은 이익을 누리기 위해 정치를 한다. 이런 구도에서 보자면 전통적인 군자는 언제나 패배할 수밖에 없다. 결국 군자가 혁명을 통해서나 세력을 키워 이들을 완전히 몰아 낼 수 없다면, 타협의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래서 현재로서

는 점진적으로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밖에 달리 뾰족한 길이 안 보인다.

필자가 이렇게 현대정치에 윤리적인 잣대만으로 적용시키기 어렵다고 말하면 율곡이 "군자가 임금을 이끌어 도리에 맞게 하여 삼왕오제의 다스림을 따르게 하려고 하면, 소인들은 군자들이 고담준론으로 세상을 그르친다고 지목합니다."라고 지적한 것에 해당될 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정치사에서 볼 때 율곡의 시대에는 대다수의 백성들이 통치의 대상이었고, 이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하는 점에서 올바른 임금과 군자인 신하를 통한 왕도정치를 주장했겠지만, 오늘날은 전제군주가 다스리는 시대가 아니라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선택한 대표가 나라를 관리한다. 그러므로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할 때는 각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를 뽑아 정치를 맡겨 이익과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음을 말해 보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치는 언제나 힘 있는 세력들의 이익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그래도 그 정도 이해관계가 타협이라도 된다면 다행이라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따라서 앞에서 율곡이 말한 유교의 정치철학을 현대에 적용시키려면 그런 한계가 있다. 사실 조선도 겉으로는 백성들을 위한 왕도정치를 표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백성들의 삶보다는 일부 사대부 양반들의 이익을 위한 정치가 더 우세했다. 이렇듯 삼대 이후 정치의 모습이 본질적으로 힘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힘없는 사람들이 언제나 고달팠다. 그런 점에서 정

치지도자들이 힘없는 백성들을 우선적으로 보살피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여기는 유교의 왕도정치의 이념은 아직도 유효하다.

한문 원전 음미하기

小人之攻君子也엔 必別立名目하여 以惑上聽焉하
소 인 지 공 군 자 야 필 별 립 명 목 이 혹 상 청 언

니라. 君子潛心性理之學하여 欲遵先正之訓하면 則
군 자 잠 심 성 리 지 학 욕 준 선 정 지 훈 즉

目之以僞學焉하니라. 修身行義하여 欲明其彝倫하
목 지 이 위 학 언 수 신 행 의 욕 명 기 이 륜

면 則目之以僞善焉하니라. 引君當道하여 欲踵三五
즉 목 지 이 위 선 언 인 군 당 도 욕 종 삼 오

之治하면 則目之以高談誤世焉하니라. 忼慨論事하
지 치 즉 목 지 이 고 담 오 세 언 강 개 논 사

여 欲矯流俗之弊하면 則目之以浮薄喜事焉하니라.
욕 교 류 속 지 폐 즉 목 지 이 부 박 희 사 언

引進同志하여 欲與共治國事하면 則目之以朋黨締
인 진 동 지 욕 여 공 치 국 사 즉 목 지 이 붕 당 체

結焉하니라. 好善嫉惡하여 激濁揚淸하면 則目之以
결 언 호 선 질 악 격 탁 양 청 즉 목 지 이

排斥異己焉하니라. 守正不撓하여 欲扶公道하
배 척 이 기 언 수 정 불 요 욕 부 공 도

면 則目之以專制國柄焉하니라. 面折廷爭하여
즉 목 지 이 전 제 국 병 언 면 절 정 쟁

欲補君德하면 則目之以不敬君上焉하니라. 進必以
욕 보 군 덕 즉 목 지 이 불 경 군 상 언 진 필 이

禮하여 不顧萬鐘하면 즉 目之以要君索價焉하니라.
례 불 고 만 종 목 지 이 요 군 색 가 언

道旣不行하여 奉身而退하면 則目之以怨懟不遜焉
도 기 불 행 봉 신 이 퇴 즉 목 지 이 원 대 불 손 언

하니라.

攻: 공격하다/欲: 하고자 하다/必: 반드시/別: 따로/名目: 구실, 명목/惑: 현혹시키다/上: 임금/聽: 듣다/焉: 종결의 어조사/潛心: 마음을 두어 깊이 생각함/性理之學: 성리학/遵: 좇다/先正之訓: 선현들의 바른 가르침/欲~則目之以~: ~하고자하면 以~로써 지목하다/僞學: 거짓 학문/修身: 몸을 닦음/行義: 의를 행함/彛倫: 인륜, 법도/引: 이끌다/當道: 도리에 맞게 하다/踵: 좇다/三五之治: 삼왕과 오제의 다스림/高談: 고담준론의 약어/誤世: 세상을 그르침/慷慨: 비분강개/論事: 일을 논함/矯: 바로잡다/流俗之弊: 세속의 폐단/浮薄: 마음이 들뜨고 경박함/喜事: 일 만들기 좋아함/同志: 같은 뜻을 지닌 사람/與: 함께/共治: 같이 다스림/朋黨締結: 붕당을 맺음/好善嫉惡: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함/激濁揚淸: 흐린 것을 배격하고 맑은 것을 선양함/排斥異己: 자기와 다른 것을 배척함/守正: 바름을 지킴/不撓: 흔들리지 않음/扶: 붙들다/公道: 공평한 도리/專制: 혼자서 일을 결정함/國柄: 나라의 정권/面折: 면전에서 논박함/廷爭: 조정의 논쟁/補: 돕다/顧: 돌아보다/萬鐘: 많은 녹봉/要君: 임금을 협박하다/索價: 가격을 찾다/奉: 받들다, 보전하다/退: 물러나다/怨懟: 원망하다/不遜: 불손하다

해석

소인이 군자를 공격할 때에 반드시 구실을 따로 내세워 임금의 귀를 현혹시킨다. 군자가 성리(性理)의 학문에 마음을 두어 선현들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면 거짓 학문이라고 지목한다. 몸을 닦고 의를 행하여 인륜을 밝히려고 하면 위선이라고 지목한다. 임금을 이끌어 도리에 맞게 하여 삼왕오제의 다스림을 따르게 하려고 하면 고담준론으로 세상을 그르친다고 지목한다. 분개해서 일을 논하여 세속의 폐단을 바로 잡으려고 하면 경박하게 일 만들기 좋아한다고 지목한다. 같은 뜻은 지닌 자들을 이끌어 나아

오게 해서 나라의 일을 함께 다스리려고 하면 붕당(朋黨)을 맺는다고 지목한다.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며 흐린 것을 배격하고 맑은 것을 선양하면 자기와 다른 것을 배척한다고 지목한다. 바른 길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아 공적인 도리를 붙잡으려고 하면 나라의 정권을 혼자 잡고 휘두른다고 지목한다. 임금의 면전에서 직언하거나 조정에서 논쟁을 벌여 임금의 덕을 도우려고 하면 임금을 공경하지 않는다고 지목한다. 반드시 예를 갖추어야 벼슬길에 나아오며 많은 봉록을 하찮게 여기면 임금을 협박하여 비싼 값을 받으려 한다고 지목한다. 도가 시행되지 않아서 물러나면 원망하여 공손하지 않다고 지목한다.